

# 캐논, 특허권 침해로 3천4백만불 배상 명령 받아

세계 2위 디지털 카메라 생산업체인 캐논이 특허권 침해로 3천4백7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캐논이 미국의 특허 라이선스 업체인 '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St. Clair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ts Inc.)'가 보유한 4건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에 대한 특허를 도용했다며 3천4백7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세인트 클레어측은 지난해 캐논과 니콘, 후지 필름, 미놀타, 올림푸스 등 일본 디지털 카메라 업체 8개사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소니도 유사한 소송에서 세인트 클레어에 2천5백만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 중국 건전지업체 미국과의 특허분쟁 승소

중국과 미국 건전지업체가 1년4개월간 끌어오던 특허분쟁에서 중국이 승소했다. 미국 에너지저장 및 에버레디전지가 지난해 5월 '중국의 쌍루(雙鹿), 바오왕(豹王), 난푸(南孚) 등 7개 건전지업체가 무수한 알칼리 건전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나 결국 중국 측 승리로 끝났다고 신화통신이 지난 10월 5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고발된 중국 기업 중 유일하게 승소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저장 및 에버레디가 ITC에 제소한 후 중국 건전지공업협회는 공동으로 소송에 맞섰으나 지난 6월 열린 1차 판결에서 패소했었다.

# 미국 특허상표청 MS의 FAT 기술 특허권 철회

미국 특허상표청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가지고 있는 파일할당 테이블(FAT)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철회했다고 지난 10월 4일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FAT는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등의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규정한 기술로 특히 윈도 기반하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첫번째 예심인 이번 판결에서 특허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996년에 파일할당테이블에 관한 특허권을 인정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FAT 기술은 프로그래머들에게는 평범한 기술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심 판결로 그동안 FAT에 대해 라이선스료를 지불했던 기업들과의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최종 심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엔바이오, 미국 관계사의 암진단기술로 유럽서 특허취득

엔바이오테크놀러지는 지난해 9월 지분 출자해 주요 주주로 있는 미국 캔젠사의 방광암 조기 진단 기술(Micro-Satellite Analysis, 일명 MSA기술)이 호주 및 유럽 17개국으로부터 세계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0월 26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타액의 분석을 통한 종양의 발견'이라는 명칭으로 받았는데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이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며, 이의 상용화 권리는 캔젠사와 엔바이오테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 MSA 기술이 FDA 최종 승인후 상용화가 실현되면 총 매출액의 2%를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 라이선스(License) 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고 엔바이오테크는 설명했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창업자산 '지식재산권' ⑤

# 직무 발명이란 무엇인가?

감수/오혜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